

일본영화 리메이크 봇물...제2의 '럭키'는?



'골든슬럼버, 지난 14일 개봉해 순항 중 '리틀 포레스트·지금 만나러...' 개봉 예정

일본영화 '열쇠 도둑의 방법'을 리메이크 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국 관객 697만 명(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럭키'. 일본 영화를 리메이크 한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하는 가운데, 원작을 뛰어 넘어 한국에서도 흥행을 이끌 제2의 '럭키'가 될 작품은 무엇일까.

지난 14일 개봉해 5일 동안 168만 명을 모으며 순항 중인 강동원 주연의 '골든슬럼버'(노동석 감독, 영화사 집)는 2010년 개봉한 일본 영화 '골든슬럼버'(나카무라 요시히로 감독)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일본의 '골든슬럼버'는 이사가 코타로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일본 총리의 폭탄 테러(한국의 '골든슬럼버'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의 폭탄 테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누명을 쓰게 된 평범하고 성실한 택배기사의 이야기를 그렸다. 일본의 믿고 보는 배우 사카이 마사토가 주

연(2014) 등은 연출한 임순례 감독이 폐기판을 담은 한국판 리메이크작 '리틀 포레스트'는 두 편의 시리즈를 한 편의 영화로 합쳐 속도감을 더했다. 여기에 '아가씨'(2016)의 히로인 김태리와 류준열 등 총무로 최고의 블루칩들이 의기투합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3월 14일 개봉하는 소지섭·손예진 주연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역시 2004년 개봉한 동명의 일본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도이 노부히로 감독이 연출하고 다케우치 유키오와 나가무라 시도가 주연을 맡은 원작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정미정에 기억을 잃은 채 돌아온 측은 아내와 남편의 가슴 아픈 러브스토리를 그린 멜로 영화로 많은 일본 영화 팬들 사이에서 인생작으로 꼽히고 있는 작품이다. 한국판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연애소설'(2002), '클래식'(2003), '내 머리 속의 지우개'(2004) 등 명작 멜로 영화로 탄성시킨 '한국 멜로 영화의 얼골' 손예진과 소지섭이 주연을 맡았다. 두 사람의 환상적인 케미감으로도 팬들의 기대를 하늘을 찌르고 있다.

동방신기부터 워너원까지...3월의 보이그룹 대전



꽃피는 봄, 가요계에는 보이그룹 대전이 펼쳐진다. 설 명절 이후 가요계가 다시 활기를 띠 전망이다. 무엇보다 3월부터 보이그룹 선두배들의 컴백 러시가 이어지며 뜨거운 접전이 기대된다. 아이돌의 연이은 컴백으로 소녀팬덤의 활동도 어느 때보다 활발해질 예정이다. 다양한 음악들, 연이은 보이그룹 컴백으로 더 풍성해질 가요계다.

동방신기

그들 동방신기가 지난해 군 전역 이후 드디어 본격적인 국내 활동에 나선다. 동방신기는 지난해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이 연이어 전역하면서 완전체로 일본 활동을 먼저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몇몇 예능에 출연했는데, 내달 동방신기의 새 앨범을 발표하면서 가요계에도 복귀하게 됐다. 특히 동방신기는 지난해 말 2004

년부터 함께 해 온 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약을 체결하면서 더 탄탄한 바탕에서 신보 작업을 진행 중이다. 3월 컴백을 목표로 새 앨범 작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컴백 전 MBC '나혼자 산다'에 출연해 예능 나들이에도 나선다. 오랜만의 국내 활동인 만큼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으로 가요계를 달굴 예정이다.

갓세븐

그들 갓세븐도 3월 컴백 준비를 마쳤다. 갓세븐은 3월 새 앨범을 발표하고 오는 5월부터는 월드투어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갓세븐의 존재감을 다짐 계획이다. JB의 자작곡을 타이틀로 내세워 좋은 반응을 얻었던 만큼 신곡에는 어떤 이야기를 담았을지 주목된다. 갓세븐은 특히 이번 컴백과 함께 새로운 리얼리티 프로그램 론칭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케이

블채널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와 MBC '발칙한 동거'까지 예능에서도 갓세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NCT

SM엔터테인먼트의 NCT는 올해가 결전의 해다. 이들은 올해 'NCT 2018'로 초대형 프로젝트를 예고하고 있다. 정우, 루카스, 쿤 세 명의 NCT에 새 멤버로 합류해 진주력을 높였다. NCT U부터 NCT 127, NCT 드림까지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NCT 2018'의 첫 번째 주자는 NCT U로, 신곡 '보스'를 발표하고 활동에 나선다. NCT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올해 활동을 통해 이들의 색깔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3월에 새 앨범을 발표하기 전 다양한 콘서트와 활동,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워너원

그들 워너원도 3월 컴백한다. 워너원은 지난해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로 결성된 이후 가장 주목받는 보이그룹이 됐다. 지난해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고, 올해 12월 활동을 끝내기 전 첫 번째 활동을 시작하는 것. 워너원은 공식 SNS를 통해 '워너원 2018 골든 에이지 비긴즈'라는 글과 함께 컴백을 알리는 티저를 게재해 기대를 높이고 있는 상황. 워너원은 엑소와 방탄소년단을 잇는 앨범판매량을 기록할 정도로 막강한 팬덤을 갖고 있는 만큼, 3월 보이그룹 대전에서도 역대급 파급력이 기대된다.

'동상이몽2', 33주 연속 동시간대 1위...수라커풀 13.2%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의 '수라커풀'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낄스 코리아에 따르면, 19일 밤 방송된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 (이하 '너는 내 운명')은 1부 10.9%, 2부 11.0%(이하 수도권 가구 평균 기준, 전국 1부 9.6%, 2부 9.8%)를, '너는 내 운명'과 동시간대 방송된 KBS2 '인생하세요'는 5.9%(전국 5.7%), MBC tvN '토크 콘'은 2.0%를 기록했다. '너는 내 운명'은 33주 연속 동시간대 시청률 1위와 월요 전체 예능 1위 기록을 이어가는 한편, 20~49세 사이의 젊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2049시청률'도 5.1%로 나타나 변함없는 인기를 자랑했

다. 이날 '너는 내 운명'에는 스페셜 MC로 박준형이 출연한 가운데 최수종·하희라 부부의 방비영 여행기, 두 번째 추우택배 배달을 위해 한 극단을 찾은 추지현·우효광 부부, 소이현·인교진 부부의 정관수 술 에피소드가 그려졌다. 분당 최고 시청률 13.2%는 '수라커풀'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차지했다. 이날 최수종은 하희라와 방비영에서 액티비티를 즐겼다. 최수종을 발발 떨게 한 집라인에 이어 두 사람은 카약을 타러 향했다. 카약 시험에 나선 두 사람은 최수종이 하희라를 추월하려는 순간 하희라가 "오빠, 이제 위험하다 스타!"이라며 경기를 자제 종료(?) 해버리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최수종은 "제가 이겨려고 한다. 그런데 결론은 백전 백패다. 제가 이겨도 자기가 이길 때까지 해야한다"며 하희라의 승부욕을 폭로했다. 이에 하희라는 "이렇게 저도 (최수종이) 좋아한다"며 웃었다. 이후 내기에서 진 대가로 최수종이 하희라의 손이 뽀빠하는 모습이 공개돼 달달함을 선사했다. 수라커풀은 다음 날, 방비영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새로운 도시로 이동에 나섰다. 무려 7시간 동안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려야 하는 곳. 최수종은 "거길 가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고 전해 기대감을 자아냈고, 두 사람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은 이날 분당 최고 시청률인 13.2% 기록하며 다음 여행지에서 수라커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궁금증을 키웠다. 추지현, 우효광 부부는 두 번째 추우택배의 주인공으로 한 극단을 선정했다. 연습에 매진하느라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단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두 사람은 폭방을 찍으며 열심히 만든 떡국과 잡채 등을 싸들고 연습실을 찾았다. 추지현이 떡국을 완성하는 동안 우효광은 단원들과 번역기 어플을 이용해 대화를 나눠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단원들과 추우택배를 떡국으로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이어 우효광은 자신들을 위해 선보인 단원들의 퍼포먼스를 본 뒤 직접 타악에 도전해보는 모습으로 훈훈함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인교진은 정관수술에 대한 걱정으로 공감을 샀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정관수술이 화두에 오르자, "수술을 하면 남성성이 사라진대더라", "꽃꽂이를 한다더라" 등 온갖 루머가 쏟아졌다. 이를 지켜본 최수종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빠, 더 건강하게 운동도 잘 한다. 더 좋다. 아내도 더 예뻐 보인다"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건넸다. 인교진은 3+1 행사 때문에 정관수술을 함께할 배틀원정체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삼남 차 친구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오늘의 순세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음력 1월 6일)

<p>▶ 쥐띠 4, 8, 12월생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상책.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식처를 찾기 힘들 것. 이성을 찾고 현명히 판단해야 한다. 그, 사, 증 성씨 사업 번창을 원하면 신용부터 지키라. 제품의 확실성과 창의력도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p>	<p>▶ 용띠 아무도 모르게 해살 속에서 자기 색깔을 키워 나가 는 격. 그, 가, 천 성씨 주위 도움 없이 사업을 번창시킬 수. 가장 화목도 한몫을 하는구나. 1, 2, 5, 7월생 성급하게 행하 하면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파란색이 행운의 색.</p>	<p>▶ 원숭이띠 투기에 손대면 헤어지기 힘든 법. 3, 7, 9월생 가정을 생각하라. 쥐, 소, 양, 개띠 조연은 천금을 쥐도 아깝지 않을 수 있다. 그, 오, 천 성씨 사업하려면 미래성과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추진력도 요구됨을 알아. 동쪽 길.</p>
<p>▶ 돼지띠 나무가 반듯하고 불꽃 있게 성장하려면 잔가지가 잘리는 아픔을 치러야 하는 법. 1, 6, 7월생 부모 품에서 헤어날 수 없을 때. 모, 바, 증 성씨 사업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고동이 필요하겠다. 사업 운이 확장하나 변동할 듯.</p>	<p>▶ 돼지띠 주인이 될 수도 있는데도 잠시 쉬어가는 격. 9, 11, 12월생 책임감 없는 행동은 하지 말라. 때가 왔는데 놓칠까 염려된다. 지혜를 얻으라. 마흔인 나, 사, 증 성씨 현재 애인과 올해 웨딩마치를 올리면 좋겠다. 건강 주의.</p>	<p>▶ 닭띠 모, 오, 증 성씨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쉬는 날이 될 듯. 내일을 위해 재충전하라. 5, 7, 9, 10월생 인성이 되지 말라. 타인이 조종하는 대로 따르면 당신에게 이익이 없을 수 있다. 자기 의견을 과감히 내세우라. 시비를 조심할 것.</p>
<p>▶ 호랑이띠 1, 10, 12월생 바다의 잔잔함만 믿다 폭풍의 과격함을 앞서 발견하기 어려울 듯. 선이 있으면 악이 있음을 알아. 바, 프, 증 성씨 마음의 고동을 삼키려 하지만 말고 풀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애정의 감정을 폭로하라. 고백을 더욱 잠을 것.</p>	<p>▶ 말띠 2, 3, 7월생 사업에 새로운 서광이 비칠 듯. 꾸준하게 믿고 나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기본과 성격이 매사를 흥탕물에 빠뜨린다. 그, 사, 오, 프 성씨 연상의 연인으로부터 검은 손이 뻗치니 흰 장갑을 끼워주라. 복, 서쪽 가지 말 것.</p>	<p>▶ 개띠 당신 욕심으로 가정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아. 분노를 지켜야 편안하다. 1, 2, 6월생 건강이 염려되는 날이다.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친구나 동료 간 유대관계 좋아질 수. 검은색 피할 것.</p>
<p>▶ 토끼띠 열쇠는 본인이 쥐고 있음을 알아. 그, 그, 자, 증 성씨 부하 탓하는 것은 본인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3, 8, 9월생 가정의 앞날은 당신이 하기 나름. 바, 오, 천 성씨를 멀리하는 것도 좋을 듯.</p>	<p>▶ 양띠 다, 바, 사, 오 성씨 자만심에 빠지면 좋은 일도 액운으로 변한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할 때. 참음성과 겸손함을 가지면 좋을 듯. 5, 6, 12월생 생각할수록 보고 싶은 것이 떠난 애정이다. 새로운 일에 투자함이 어떨지. 동기간 화목할 것.</p>	<p>▶ 돼지띠 얼어붙은 동지에 새가 앉으니 오기는 있으나 자신은 아픔을 당하느니라. 3, 7, 9, 11월생 당신이 희생해 남을 도우니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듯. 오, 천, 트 성씨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리라. 그를 믿는 것은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 차 조심하라.</p>